

논문투고일 : 2018. 3. 29
심사완료일 : 2018. 5. 14
게재확정일 : 2018. 5. 14

한국불교 수륙재의 변용 고찰

-세부 의식을 중심으로-

이 성 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I. 여는 말
- II. 불변과 수연
- III. 의식의 상보와 신편
- IV. 상황의 중시와 의미의 전화
- V. 맺는 글

I. 여는 말

인간이 생성해내는 문화라는 양상은, 수용하는 대중이 공유하고 후대로 이어져 학습되며 축적되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늘 새롭게 변화되어¹⁾ 수용되는 변용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 때, 한국불교 수륙재는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14세기 초 고려의 혼구는 ‘신편수륙의문’이라는 수륙의문(水陸儀文)을 편찬해내고, 죽암 유(兪)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를, 또 다른 승려는 『결수문』이라 불리는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를 편찬해 낸다. 이것은 기존의 의문으로 의례를 설행하는 데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편자들은 의례를 신편하거나 요점만을 가려 뽑은 의문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의문의 신편(新編)이나 요점만을 취합하는 것은 수륙재의 변용(變容)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한국불교 의례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노고일지도 모른다. 단지 그것을 알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전해진 의례(수륙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이다.

한국불교 수륙재의 변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 의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륙재의문조차도 그리 많지 못하다. 현재 한국불교 수륙재의 대본으로 전해지는 수륙의문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와 같은 요점 위주 의문, 『영산대회작법절차』(1634) ·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1661) · 『신간범음산보집(新刊梵音刪補集)』(1713) ·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1707, 1721, 약칭『범음집』) 등과 같은 영산 합편 의문,²⁾ 그리고 설행을 담고 있는 『천지명양수륙잡문』(1531, 약칭『排備文』)과 같은 보조의문과 각단 형식으로 구성된 『자기산보문(仔夔刪補文)』(1664) 등 크게 5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의문들이 시대와 장소를 경유하며 누차 복각(復刻)되는데, ‘산보(刪補)’하거나 ‘작법절차(作法節次)’ 등을 논하며 주석을 달아 간행된 『오종범음집』 등은 한국불교 수륙재의 변용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논자는 상황논리와 역동의 한계로 한국불교의식의 특성을 고찰한 이래³⁾ 한국불교 수륙재의 변용과 관련해 ‘수륙재의 한국화에 대해 고찰’하고,⁴⁾ ‘한국수륙재의 특성’과⁵⁾, ‘영산

* 이 논문은 2016년 6월 25일 불교의례문화연구소 제8차 불교의례문화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임영정, 1998/2002, 『한국의 전통문화』, 아름다운세상, 17~18쪽.

2) 이성운, 2015,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호, 한국불교학회, 430~438쪽.

3) 이성운, 2013, 「한국불교의식의 특성-상황논리의 역동과 한계」, 『대학원연구논집』 제6집, 중앙승가대학교대학원.

4) 이성운, 2015, 「수륙재의 한국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선학』 제40호, 한국선학회.

5) 李誠雲, 2015, 「韓國水陸齋의 特性」, 『以法相會-寶寧寺·毗盧寺 明·清代水陸畫展暨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 財團法人佛光山文教基金會.

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⁶⁾ 등을 탐색하였으며, 또 미등은 『한국수록재의 의례와 실행양상』⁷⁾에서 한국불교 수록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한국수록재의 변용을 살펴보려면 한국불교에서 간행된 수록의문과 인식 등을 함께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에서 생성한 수록의문이 적지 않고 현대에도 계속적으로 편찬되고 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한국불교의 수록재는 정체된 과거의 의례로 남아 있지 않고 현재에도 계속 실행되는 의례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해서 이 글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논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며, 한국불교 수록재의 향후과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록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또 세부 의식들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변용의 관점에서 개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남북 수록의문 가운데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례』를 1차 비교 대본으로 삼고, 11세기 말 수록의문이 한국 불교에 전래된 이후에 일어나는 신찬·촬요·찬요·작법절차·산보 등의 의문과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 실행 의문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그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보겠다.

II. 불변과 수연

1. 불변(不變)의 의지

한국불교에 수록재가 수용된 역사는 자못 길다. 963년에 귀법사에서 무차수록회를, 971년 갈양사에서 수록도량을 개설하였다거나 11세기 말 1090년 최사겸이 송에서 수록의문을 구해와 수록당을 짓고 수록재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⁸⁾ 볼 때 그렇다. 13세기 활동한 일연의 제자 훈구는 ‘신편수록의문’을 지었고, 죽암 유(猷)에 의해 『천지명양수록재의찬요』(1권, 『중례문』으로 불림)가 편찬되었으며, 『수록무차평등재의촬요』(『결수문』이라고 불림) 또한 14세기 중기에 편찬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⁹⁾ 이는 한국불교의식의 역동적인 수용과 그로 인한 발화(發華)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수록재 의문을 싣고 있는 『작법절차』(1496),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중범음집』,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09)과 같은 의례의문은 의례 절차를 담고 있는데, 이는 의례가 원본대로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았거나 변화로 말미암

6) 이성운, 2015,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호.

7) 延濟永(彌燈), 2014, 『한국水陸齋의 儀禮와 실행양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논문.

8) 고상현, 2011, 「고려시대 수록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10~17쪽.

9)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록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263쪽.

아 새로 편찬돼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으로부터 수륙재의 의례의문이 전래되었지만 그것대로 의식을 선행할 현실적 여건이 되지 못했으므로 의문을 새로 편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휴대와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원본 의문에서 ‘촬요’와 ‘찬요’라는 명칭으로 의례의 요점만을 간추린 의문들이 생성되었다고 보인다. 의문에 나타나 는 두 모습은 의례 선행 상황과 의례 현장의 수요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체는 무상하고 무아(無我)라서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본래 세운 서원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륙재는 여기에 이대로 있는 이들을 위한 재회가 아니다. 재회를 개설하고 재회에 오는 이를 막지 않고 재를 베푸는 것이다. 재회 동참의 평등을 추구한다. 하지만 수륙재회에서는 각 존재가 처한 양상에 따라 상위에 모시기도 하고 중위로 모시기도 한다. 또 소속이 없는, 알 수 없는 일체의 외로운 이들은 하위에 청해 모시지만 그들이 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혹자는 이를 “무차평등한 수륙재의 성격과 거리가 멀다”¹⁰⁾고도 하지만 ‘수륙무차평등재의’에서 평등은 무차의 평등이 아닌 ‘재’의 평등이라고 이해돼야 할 것 같다. 재장에서 언급되는 평등공양(平等供養) 차등보시(差等布施)¹¹⁾와 같이 말이다.

수륙재에 대한 한국불교인들의 이해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¹²⁾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중생에게[無主孤魂] 제사를 지내주어 사시(四時)의 제향(祭饗)이 끊이지 않게¹³⁾ 하고 불법을 들려주어 구원하고자 하는, 수륙재의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수륙재가 무량한 고통을 받는 육도의 사생을[六道四生]¹⁴⁾ 구원하는 의례라고 인지하는 것은 불변(不變)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수륙의문을 신찬하고 산보하고 찬요·촬요할 때에 놓칠 수 없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무주고훈구제’라는 수륙재의 본래적 기능은 수륙의문의 신찬과 산보, 찬요·촬요에 일정하게 견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불변의 의지가 투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된 ‘신편수륙의문’·‘작법절차’·‘산보집’ 등은 서로 다른 방식과 계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륙재에서 추구하는 본질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10) 延濟永(彌燈), 2014, 『한국수륙齋의 儀禮와 선행양상』, 177~178쪽.

11) 수륙재회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재(음식)를 베풀어 공양하지만, 의례의 선행을 위해 중사하는 어산스님들은 격에 따라 차등으로 보시를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12) 이성운, 2014, 『삼회사 국행수륙재의 설단과 장엄』, 『삼회사 국행수륙대재의 선행양상과 발전 방향』삼회사, 10~12쪽.

13) 月渚道安, 〈三和府川邊水陸疏〉, 1996, 『영가천후법어집』, 토방, 215~216쪽.

14) 宗鑑集, 『釋門正統』第四, X75, n1513, 303c쪽.

2. 수연(隨緣)의 의식

한국불교 수륙재 의문(의궤)¹⁵⁾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설행상황에 따라 채택되는 대[『지반문』]·중[찬요의 『중례문』]·소[찰요의 『결수문』]의 각 의문, 수륙재 설행의 보조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잡문(雜文)의 『배비문(排備文)』, 각단 식의 설행을 모아놓은 『자기산보문』 등은 순수 수륙의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작법절차’, ‘영산대회작법절차’, ‘범음산보집’ 등 ‘절차’나 ‘작법’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는 수륙의문으로 이는 영산작법이 합편된 의문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두 유형은 다시 대·중·소이며, 영산의 작법절차와 함께 대·중·소의 수륙의문이 편제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수륙재가 동일의 규모로 설행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시를 들 수 있지만 의례 설행 상황에서 자유자재한 모습들이 거론될 수 있다.

영산작법의 설행으로[隨緣] 말미암아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의 한국 수륙재는 사찰 내에 수륙당[전]을 짓고 그곳에 삼단을 설치하고 설행하였다고 보이지만[실내 의식] 산수 좋은 깨끗한 야외에서¹⁶⁾ 설단하고 수륙재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순수한 수륙재만을 행하지 않고 오전에는 상단에 권공하고 영산의 부처님을 청해 공양을 올리는 작법을 행하며 법화경 설법을 들었다. 그리고 반승(飯僧)을 마치고 상황 따라 오후 미시(未時, 오후 2시) 또는 신시(申時, 오후 4시)에 『중례문』이나 『결수문』으로 수륙재를 설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영산법석을 열면 자연 공불재승(供佛齋僧) 할 재자들이 도량을 찾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러 일주문 밖으로 나아간다. 그 재자들을 모시는 의식을 시주이운(施主移運)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수륙재에서 행해지는 시련(侍輦)이 그것이다. 또 재자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재를 올린다. 이때 올리는 재는 주로 면[국수]이었다고 보인다.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재를 올려야 하니 국수를 말아서 수륙도량을 찾았을 것이다.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이들을 문밖으로 마중 나가는 의식이 현재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또 영산의 법석은 산 자만의 것이 아니라 죽은 이들도 함께 법문을 들어야 한다. 해서 설판재자의 조상인 가친들을 영산 법회에 청해야 하므로 대령이라는 의례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시련에 대해 “시련에 이어 하단의 대상에게 간단하게 음식을 베풀고 기다리게 하는 의식”¹⁸⁾이라고 이해하고, 이후 관육을 행하는 것은 수륙재 본 의식에서 행하는 관육과 중복

15) 儀文은 ‘수륙의문’, ‘시식의문’ 등과 같이 臺詞 중심을 지칭하고,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처럼 의문과 설행을 지시하는 형주로 구성된 것을 지칭한다.

16) 『세종실록』 9권, 2년(1420), 9월 22일 자료집 2, 72-73쪽.

17)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韓佛全』 11, 465장쪽. “施主家具餅麵持來, 則請賢聖衆也.” 施主移運.

18) 延濟永(彌燈), 2014, 『한국수륙齋의 儀禮와 設行양상』, 178쪽.

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해한다.¹⁹⁾ 하지만 시련 이후 행해지는 대령은 영적 존재들이 법석에, 영산재회에 참석하여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대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⁰⁾

Ⅲ. 의식의 상보와 신편

앞의 장에서 수록재의 목적과 가치 등에 대한 기본 인식은 불변이지만 새 의식이 수록재에 상보되거나 신편 되는 것을 수연(隨緣)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상보(相補)의 미학

1) 운수상단(雲水上壇)의 보입(補入)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의 요점 위주 수록재 의문은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 의문대로 설행해도 별반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의식이 추가될 필요성이 없다. 『지반문』은 개계법사(開啓法事)로 상주삼보에 절을 하고, 정삼업계송과 진언, 안위제신계와 진언을 하고 연향진언(然香眞言)으로 법계의 삼보에게 수록재회를 열게 되었음을 아뢰는 것이다. 이어 예적금강성자 등 제 신중(神衆)을 청해 결계를 청하고, 비로자나여래와 관음보살께 도량에 강림하여 가지주수해주시길 것을 청하고 그것을 받아 도량에 뿌려 도량을 엄정(嚴淨)한다. 그리고 단을 세우고 또 열어 결계를 마친다. 이어 사직사자를 청한다. 차서에 아무런 논리적 비합리성은 없다. 『중례문』·『결수문』은 『지반문』의 정삼업계주와 진언 앞에 재회를 개설하게 된 연유를 아뢰는 <설회인유편>이 더해져 있고, 상주삼보에 지심귀명례 하는 예경의문이 없지만 <설회인유편> 이후의 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의 차서를 정하고 있는 『영산대회작법절차』(1613/1634)나 『범음산보집』 등의 <지반문작법절차>에 의하면, ①건회소를 읽고, ②삼할(향·축·화) 계송을 염송하고, ③대회소를 읽고, ④삼보를 찬하고, ⑤개계소를 읽고, ⑤합장계·신향계송을 염송하고, ⑥참회계송으로 업장을 참제하며, 대중과 시주는 연비를 하고나서야 『지반문』의 ‘지심귀명례~상주

19) 延濟永(彌燈), 2014, 『한국수陸齋의 儀禮와 設行양상』, 178쪽.

20) 戴曉雲 交點, 2014, 『天地冥陽水陸儀文交點』, 北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5쪽. “召請下界儀”, “召請諸靈儀”, “召請孤魂儀”가 구별되며, 대령은 ‘소청제령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삼보'로 삼배를 하고 정삼업계송과 진언을 설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현재 설행되는 한국불교 수록재의 전형의식이 제시되었다. 더해진 의식은 운수상단(雲水上壇)으로 불리고 있다.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은 소문(疏文)이나 방문(榜文)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례구조상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완전성을 지닌 수록재에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에서 설행되는 운수상단 의식이 보입(補入)되었을까. 이 점은 한국불교 수록재 변용의 한 사례이기도 하다. 더해진 운수상단에서 소문들을 제외하고 나면 주된 내용은 삼보를 찬탄하며 두 손 모두고 합장해 피워낸 합장의 연화에서 나오는 연꽃 향기가 삼천대천세계에 퍼져 일체 삼보님께 재자[나의] 청원이 전달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업장을 참회하는 의식이다.²¹⁾

『지반문』의 처음은 일체에 두루 계신 상주삼보께 절을 바로 올리고 있지만 한국불교 수록재에서는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례문』·『결수문』의 처음은 수록재회를 열게 된 뜻을 알리는 <설회인유편>인데, 그 앞에 운수상단 의식을 설행하는 것은 소문을 들을 대상이 현전해야, 다시 말해 삼보의 강림 이후에나 소문을 아뢰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후에 시설된 <주향통서편>이 향을 살라서 재자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회인유편> 이전에 시방의 상주삼보께 재자의 재회를 열게 되었음을 향을 살아 고하고 있다.

어느 정도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수록의문으로 수록재를 설행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설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예의의 문제라고 보았을 것이다. 상주삼보에 예경하거나 상주삼보에 재회를 아뢰고자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였다고 보인다. 해서 인사를 드리거나 수록재회를 열게 된 연유를 아뢰기 위해 향과 등과 꽃을 찬탄하며 합장의 연꽃으로 재자의 신심을 삼보님께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의미상으로 상주삼보(常住三寶)는 일체에 편만하므로 칭명만 하고, 예경하면 된다. 별도로 강림을 청해 모시지 않고 예경하는 것인데, 한국의 수록재에서는 향과 등불과 꽃의 공능을 찬탄하며 그것들을 통해 시방에 편재한 삼보님께 신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더해진 의식의 마지막은 참회이다. 계송과 정근을 통해 참회하고 중국에는 연비를 통해 자기 정화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시방의 삼보에게 예경을 올린다. 정화된 나[我]가 아니고는 정화의 정수(精髓)인 붓다를 친견하지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수록재의 구조와 재자의 정화를 실천하는 데서 정치한 논리성과 윤리적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 이성운, 2017, 「志磬文 編修와 그 特性 考察」, 『新編水陸儀文附錄』, 서울: 경제아산연구소, 5-6쪽. 논자는 이 운수상단은 결국 "삼심귀례 ~일체상주삼보" 확장으로 "삼지심례"라고 명명한다.

2) 관음청의 보완

『지반문』에는 결계가 끝나고 나면 법사(法師)와 시주(施主)는 향을 올리고 표백(表白)은 관음보살을 청한다. 그 목적은 관음보살이 가지고 계신 감로수를 얻어 그 감로수로 재자와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서이다. 유치를 아뢰고 관음보살을 청하고, 대비주를 염송하여 정수에 대비주를 훈(薰)하여 감로수로 변하게 한다. 유치와 ‘일심봉청 천수천안 대자대비 관자재보살마하살’을 삼청하고 ‘유원 불위본서 애민유정 강림도량 가지주수’라며 대비주를 염송하여 도량은 정도로 변해지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모두 해탈을 입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불교 수록재에서는 <엄정팔방편>을 마치고 개계편에 반문계(返聞偈)를 한 다음 관음보살을 청해 가지주수를 청한 다음에 향화청과 산화락을 하고, 다시 ‘원강도량 수차공양’이라고 하며 공양을 청한다. 물론 가영, 결수계, 쇄수계, 쇄정다라니를 염송하며, 복청계 사방찬 엄정계 참회계 등을 하고 설법을 한다. 이후 개단진언 건단진언으로 이어지고 있다.²²⁾

관자재보살을 청하여 결수(乞水)하여 도량과 재자를 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엄정팔방의 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반문』에서와 달리 갖춘 관음청 의식으로 설행되고 있다. 현행 한국불교 수록재의 대부분은 『중례문』이나 『결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음청이 보완되는 모습은 『중례문』의 <엄정팔방편> 유치에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수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는 의문들도 그 유치와 쇄정호마다라니를 시설한 후에 다시 관음청을 보완하고 있어 중복성은 피하기는 어렵다. 『지반문』에는 곧 이어 비로자나불을 청하고 불공대광정광진언[=광명진언]으로 엄정을 추가하고 있다. 『지반문』에는 수록도량의 팔방을 엄정함에 대비주와 광명진언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관음청에 이어 설법의식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도량의 안팎과 동참재자를 엄정하는 삼변정토를 실현한 다음에 설법의식을 시설하고 있는 점은 한국불교 수록의문인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의 원본에서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현행의 <작법절차>나 의례현장에서는 쉽게 목격된다. 팔방을 엄정하는 연장선상에서 개설되기도 하지만²⁴⁾ 엄정팔방의식을 마치고 연향계, 삼정례, 찬불계, 대비주, 참회계, 참제업장십이존불 칭명, 십악참회, 멸죄계, 이참계, 참회진언, 개경계·개법장진언, 설법계, 입정, 설법, 석가모니불 정근 및 탄백, 공덕 회향의 순서로 현대 법회의 양태로 이어지기도 한다.²⁵⁾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의 협주의 설명에 의하면 대비주를 염송하며 물그릇을 들고 시

22) 金春明, 1988, 『水陸儀文』, 全北佛敎聯合會, 9後~11前쪽.

23)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卷第一』, HR 1, 580~581쪽.

24) 金春明, 1988, 『水陸儀文』, 9後~11前쪽.

25) 彌燈, 2010, 『국행수록대제-삼화사수록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97~103쪽.

주가 앞뒤를 따라 가며 도량의 여러 곳으로 물을 뿌리고 법회 자리에 돌아오면 증명법사는 중정(中庭)에서 설문(設問)을 한다. 설문은 『지반문』의 ‘일길시량(日吉時良) 개건법회(開建法會) 속공재법(肅恭齋法) 의재어하(意在於何)’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사가 ‘날이 좋고 때도 좋은데 엄숙하고 공손하게 재회의 법연을 건립하여 여는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수록재의 의미와 연기를 일러주는 것이다.

『지반문』과 달리 『중례문』·『결수문』은 <설회인유편>으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드러냈고, 또 간략히 설행하므로 이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지반문』의 차서에 의하면 이후 사시[10시]에 이르면 단청불로 공양을 올리고, 대중은 점심공양을 하게 된다.

『중례문』과 『결수문』을 바탕으로 수록재를 설행하는 한국불교의 수록재에서는 관음청의 보완으로 엄정팔방을 보완하고, 설문의식을 설법의식으로 대체하여 보완하고 있다. 이 또한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으로 상보의 미학이라고 칭해질 수 있을 것 같다.

2. 신편(新編)의 철학

수록재 의문(儀文)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록재에서 설행되는 모습을 보면 대체로 시련(侍輦)이나 대령(對靈)과 관욕(灌浴) 등이 수록재 의식 이전에 설행된다. 그러다 보니 수록재의 하위에서의 소청과 관욕 등과 겹쳐지게 된다. 해서 ‘중복적’이라는 의견이 있게 된다. 왜 한국불교의 수록재에는 이같이 의식의 회편(會編)되었을까.

위에서 보았듯이 『지반문』에 의하면 수록재 의식은 아침 죽을 먹고 난 다음부터 시작된다.²⁶⁾ 하지만 『중례문』로 봉행될 때는 미시(오후 2시)에²⁷⁾ 『결수문』으로 설행될 때는 신시(오후 4시)²⁸⁾에 시작된다. 이전에 다른 어떤 의식이 별도 행해지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지반십이단삼주야배치차례구식>이나 <칠주야·오주야·삼주야 수록재식>²⁹⁾에는 <재전작법(齋前作法)>이라고 제시돼 있는데, 재전작법은 영산작법이다.³⁰⁾

영산작법은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에서 독립된 의식으로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는 영산재와의 관계나 차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영산작법은 재전(齋前, 점심 이전)에 행하는 법화경을 염송하는 법석의 하나이다. 국가의례에서 법석이 파기된 것은 1420년의 일이지만 수록

26) 志磐 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HR 1, 575쪽.

27) 智禪 撰, 『五種梵音集』, HD 12, 163쪽.

28) 智禪 撰, 『五種梵音集』, HD 12, 167쪽.

29) 智禪 撰, 『五種梵音集』, HD 12, 173쪽.

30)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HD 11, 466-469하쪽. <재후작법절차>에는 범음을 아는 이가 병법 앞으로 나가 작법의 예를 물어 운수상단을 필두로 수록재를 봉행하라는 지문이 나온다.

재로 행해지는 칠칠재 사이에 각 재 3일째부터 5일간에 각종 법석이 행해지던 것이 16세기 이후 영산법석만 존치되다가 현재의 영산재로 확립되었다.³¹⁾ 영산작법은 영산의 부처님을 모시고 법화경을 듣는 법회이다. 그러다 보니 작법으로 상단의 청을 하고 공양을 올린다. 붓다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은 갖가지 예능적인 요소로 도량을 장엄하고 마음을 바친다. 영산재의 예술성이 각별하게 된 연유이다. 하나 영산재의 핵심은 공양이 아닌 법화경의 설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중왕(經中王)으로 알려진 법화경을 설하는 공덕으로 선왕선후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것이다. 수륙재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법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산작법의 실행은 당연하다. 그로 인해 한국불교 수륙재에 또 다른 의식이 편입되게 되었다.

1) 대령과 시련

수륙재가 제사 지내줄 후손이 없는 무주고혼 등 못 중생들을 위해 시설되는 것이므로, 칠칠재 중간에 개설되는 법석에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무주고혼은 하단에서 청해지므로 대령 때에 청해지는 영적 존재는 설판재자의 가친 영위[가]이다. 설판재자의 가친영가를 대면하여 법석에 모셔놓고 법화경 설법을 들려주는 것이다. 본 수륙재에도 법시라는 법문의식이 있지만 이는 하단의 고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판재자의 가친을 청해 대면하는 대령의식을 한다. 대령을 하였으니 몸과 마음을 맑히는 정화의식인 관욕을 한다. 관욕을 통해 ‘법문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오종범음집』(1661)이나 『영산대회작법절차』(1634) 같은 의문에서 대령의식이 각종 이운 의식이나 영산작법 앞에 제시되고 있는 예는 찾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1707/1723)에 이르면 대령의식과 분수작법이 이운의식들의 앞에 편제되고 있다. 대중이 문 밖의 대령소로 나아가 실행하는데 별도의 전물(奠物)이 없을 때는 차를 세 잔 올리고, 인로왕보살의 안내를 받으며 대웅전 앞 중정(中庭)으로 들어온다. 이때 재자는 위패를 받들고 와서는 마당에서 불당을 향해 삼배를 하고 위패를 영단에 안치한 다음 차를 한 잔 올린다. 저녁이 되면 분수작법(焚修作法)으로 영적 존재가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공덕을 짓게 해준다. 업장소멸은 달라니로, 선근 닦는 데는 칭명염불이 활용된다. 또 새벽이 되면 신(晨) 분수작법을 봉행한다. 재회에 필요한 각종 법구와 설주 등의 이운을 마치고 나면 영산작법에 들어가 법화경을 염송하게 된다.³²⁾ 재전에 영산작법을 하게 되므로 대령이 선행되어야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이성운, 2015,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422-430쪽.

32)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HD 11, 462~466쪽.

그렇다면 시련(侍輦)이 왜 대령 이전에 행해지는가. 시련 의문에는 시련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시련은 이운의 일종이지만 연으로 모시는 것으로 봐서 선왕선후의 위패를 모실 때 활용되었다고 보인다. 현재 시련으로 활용되는 시련의문은 『범음산보집』³³⁾이나 『석문의범』³⁴⁾에 보이는 시주이운 의문이다. 이에 대해 너무나 다른 견해들이 큰 의미 없이 전개되고 있다. 상중하의 시련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시련·대령’에서 시련의 대상을 성현중이라느니³⁵⁾ 영가가 연에 탈 수 없다느니³⁶⁾ 하는 논의가 있지만 사찰 문 밖에서 외부로부터 모셔오는 존재는, 사찰에 모셔진 불보살이 아닌, 사찰 밖에 존재하는 이들이어야 한다.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시주이운〉의 협주 설명에 따르면 ‘시주 집안에서 떡과 국수를 말아오면 곧 성현을 청하여 시련 행렬의 옹호를 청원한다.’ 시주이운 의식의 처음에 ‘봉청시방제현성’을 하고 있으니 시주이운에 대해 성현을 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성현을 청하는 목적은 그분을 청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주 집안에서 가져온 재물의 옹호를 부탁하는 데 있다.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에는 이 계송에 별도의 제목이 없지만 『석문의범』의 시련절차에는 ‘옹호계’³⁷⁾라고 하여 실행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시련에 대해 오해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연(輦)은 국왕만 타고 일반인은 교가(輶駕)를 탄다는 것인데, 국행수륙재의 경우 대표 영가는 선가(仙駕)인 선왕선후였고, 상복의 윗옷과 상여 등은 반상의 차등이 없다고³⁸⁾ 하였다. 그렇지만 시련의 대상이 일반화된 것은 후대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시련의 연에 신는 것은 시주의 관과 의대(衣帶)라고 하지만³⁹⁾ 현재 남아 있는 연들로 볼 때 ‘관과 의대를 신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시련은 그 대상에 따라 상중하의 시련이 나타난다. 불당에서 불패를 재장으로 모시고 나오는 상시련, 관육을 마친 중위의 신중을 재장으로 모시는 중시련, 사찰 문 밖에서 단을 차리고 대령하여 모시는 하시련이 그것이다. 시련·대령에서의 시련은 시주이운이거나 대령의 대상인 위패를 모시는 의식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시주를 연에 모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주의 재물(齋物)은 승가를 존속하게 하는 생명수와 다름없다. 시주 또는 재자가 재물을 가지고 오면 마중 나가 맞이하며 그곳

33) 智還 集,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HD 11, 465쪽.

34) 安震湖 編, 1935, 『釋門儀範』下, 前卍商會, 122쪽.

35) 심상현, 2003,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138쪽.

36) 延濟永(彌燈), 2014, 『한국수륙齋의 儀禮와 실행양상』, 178쪽.

37) 安震湖 編, 1935, 『釋門儀範』下, 54쪽.

38) 『禮記』 20 『雜記』상, 구미레, 2015,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모시는사람들, 112쪽 재인용. 상복의 윗옷과 상여는 반상의 구분이나 차등이 없다고 하였다.

39) 智還 集, 위의 책, HD 11, 465쪽.

에 부정이 타지 않도록 성현에게 옹호를 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옮긴다. 재물을 귀히 여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주의 정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서 시련과 대령은 수록재의 핵심의식이 변용되었다.

2) 대소(大小)의 창불

한국불교 수록재에는 창불(唱佛)이라는 의식이 선행(先行)되고 있다. 창불은 여러 성현의 명호를 창하며 청해 불사(佛事)를 옹호해 달라고 발원하는 의식이다. 창불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경전 염송의 창불인데, 사(四)금강과 팔(八)보살을 청해 법회를 옹호해달라고 발원하는 것이 그것이다.⁴⁰⁾ 현재 한국불교에 알려져 있는 신중작법은 39위 신중과 104위 신중이 있다. 39위 신중은 화엄경 중에 등장하는 신중이고, 104위 신중은 예적금강성자를 필두로 하는, 『지반문』 등에 등장하는 밀교적인 신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반문』에 의하면 예적원만금강성자나 십대명왕, 대범천왕 등 8부신중, 복덕대신 수록도량의 ‘호지’와 ‘결계’를 부탁하기 위해 청해진다.

자재천왕, 광과천왕 등 39위 화엄신중은 화엄대회와 같은 법회를 옹호해 달라고 청원할 때 청해진다고 보이는데 ‘화엄창불’이라고도 한다. 104위 신중을 청하는 경우를 ‘대창불’이라고 하고 이것이 번잡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적원만성자와 8금강, 4보살, 10대 명왕과 범천왕 등을 축약해서 ‘소창불’이라고 하여 청하기도 한다.⁴¹⁾

대소의 창불의식은 19세기 이후에 간행되는 의문들에서 볼 수 있다. 『지반문』대로 수록재를 봉행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해 제 성현을 청해 옹호를 발원하고 있다고 보인다. 창불은 각각의 신중 명호를 창하여 옹호를 발원하는 데 비해, 신중대례나 공양을 할 때는 도청(都講)으로 청하기도 한다. 창불이 선행되는 것은 영산작법과 수록도량을 옹호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록의 중단에서 두루 청해지지만 창불을 통해 신중을 먼저 통해 옹호를 발원하는 것은 한국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수록재 변용의 하나라고 하겠다.

40) 금강경계청, 1992, 『영인본 금강경언해』, 홍문각, 30~33쪽.

41) 『諸般法要』(법안 소장, 간기미상 필사본), 69전~78후면.

3) 오방을 여는 개벽오방 의식

한국불교 수륙재에는 오방의 오제를 청하여 오방의 길을 여는 개벽오방 의식이 봉행되고 있는데, 수륙재에 청할 성인이나 무주고혼과 같은 고힌들이 오지 못할까를 염려하여 다섯 방위의 길을 열어놓는 의식이다. 수륙재의 무차법회의 성격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의식이다. 중국불교 수륙재에서는 별도로 독립해서 실행하지 않고 통청의 형태로 오제가 청해지는 데 비해 한국불교 수륙재에서는 개벽오방 의식을 한다. 이 또한 한국불교 수륙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⁴²⁾ 수륙재가 재회적인 성격으로 열리므로 재장에 오는 이는 막지 않아야 하고 그 길이 막히지도 않아야 한다. 오로 의식은 현실적인 한국불교의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IV. 상황의 중시와 의미의 전화

앞 장에서 한국불교 수륙재에 새로이 보완되고 편입된 몇 종의 세부 의식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의례의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의례 현장에서 드러나는 의례 실행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또 수륙재 하부의식에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1. 견기이작

1) 자세히 간단히

한국불교의례의 특징의 하나로는 의례 상황을 살펴 시간이 촉박할 때와 여유 있을 때에 따라 의례 실행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견기이작(見機而作)이 있다. 가령 영산의 삼보를 청할 때 자세히 청하는 '광즉(廣則)'과 간단히 청하는 '단청(單講)'이 그것의 하나이다. 영산재회와 같은 법석을 행할 때, 거불을 하고 붓대를 청하며 머리를 일으키며 유치를 하고 청사를 한다. '불타야중·달마야중·승가야중'을 청하고 삼계사부의 일체 성증을 청하여 자비로써 법회에 광립하시기를 청하며 자리를 바친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작게 예하고 간단히 청하

42) 延濟永(彌燈), 2014, 『한국水陸齋의 儀禮와 실행양상』, 170쪽.

는 의식으로 설행한다. 위의 유치와 삼보·사부 성현을 청하는 유치와 청사를 단 하나의 계승으로 설행하는 것이다. “시방삼세의 부처님과 바다 속 용궁에 감춰진 미묘한 일만의 진리와 보살 연각 성문 대중을 받들어 청하오니,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강림을 바랍니다.”⁴³⁾라는 봉청계와 ‘나무불타부중광림법회’ 등 현재의 삼보통청 거불을 제시하며, 이를 ‘소례단청즉’이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어나 요잡을 하며 거동을 하는데 기미를 봐서 시간이 바쁘면 ‘각조 원명’의 유치부터 삼계 사부청을 삭제하라고⁴⁴⁾ 하여 앞의 의문이 광즉(廣則) 의문이 됨을 밝히고 있다.

소청(所請)한 성현에게 공양을 올릴 때도 광즉(廣則)일 경우 17구의 향화계로 봉행된다. 향기 나는 꽃을 올리며 그 향기에서 일체의 공양이 출생되어 일체 삼보에 공양되고 그 공덕을 입어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여 함께 무생의 불지를 증득하기를 발원한다. 하지만 이 내용을 ‘원차청정묘향찬(願此清淨妙香饌) 화생진공변법계(化生盡供徧法界) 보어무진삼보전(普於無盡三寶前) 일일장엄신공양(一一莊嚴伸供養)’의 네 구 운심계송으로⁴⁵⁾ 설행한다. 수록의문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양태를 보이는 『결수문』에⁴⁶⁾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한국불교 삼보통청에서 활용되고 있다. 상단과 중단의 공양에서 운심계송과 진언으로 올리는 공양이 헌공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는 약례를 택한 『결수문』의 편찬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쓸고 짓고

범패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의 필수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숙련된 범패를 익히려면 수년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한다. 범패를 익힌 승려들에 의해 한국불교 수록재가 설행되다 보니 수록재나 영산재·예수재 등은 전문의식이라고 분류한다. 전문의식이 되면서 수록재 등은 소수의 의식 승려들의 전유물처럼 변해진 것이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태라고 할 수 있다. 거불소리라든가 인성이 소리, 영산회상불보살, 개법장진언의 ‘옴 아라남 아라다’와 같은 소리들은 상황 따라 쓸고 가기도 하고 소리를 짓기도 한다.⁴⁷⁾ 그 기준은 전적으로 의례 설행상황이다. 간단하게 소리를 할 때는 쓸어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줄어든다. 범주가 의례 설행상황을 보가며 그때그때 대응하며 의례를 진행하는 것이다.

43) 『靈山大會作法節次』, HR 2, 134쪽, “奉請十方三世佛 龍宮海藏妙萬法 菩薩緣覺聲聞衆 不捨慈悲願降臨”

44) 智遷 集, 앞의 책, HD 11, 467쪽.

4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HR 1, 635쪽.

46)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268쪽.

47)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교장 법안 전언.

3) 통청(通請)과 도청(都請)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에서는 『범음산보집』 등에 보이는 12단, 17단, 25단, 33단, 45단 설단형태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대체로 7단(壇) 내외의 단이 차려지고 있다. 『중례문』·『결수문』에 의거하면, 사자단, 오로단, 상단, 중단, 하단이 준비돼야 한다. 거기에 관음단이나 『지반문』에 의거하면 비로단이 더해져야 하며, 사자단의 사자가 타고 떠날 말들을 위한 마구단이, 의문을 중심으로 볼 때 이해되는 설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용왕단이나 고사단이 진설되기도 한다.

의문 상에 의거하여 5단에 위목을 안치하고 통청하면 되지만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에서는 『지반문』의 예가 아니고서는 도청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결수문』에 의거하면, 상단이나 중단·하단의 존재를 공히 1청의 도청이다. 『중례문』에 의거하면 상단은 불보·법보·승보의 삼청으로 이뤄지고, 중단도 천도(天道)·신도(神道)·명도(冥道)로 삼청하며, 하단의 경우 인로왕보살을 증명으로 청한 다음 육계천인·세주명왕·선망대신·비구와 비구니·일체인륜·아비지옥 등 24위로 나누어 각각 청하고 있다. 각각을 두루 통하여 한 분 한 분 통청(通請)하는 모습은 『지반문』에서나 볼 수 있고, 『중례문』은 삼청과 25청, 『결수문』은 3단을 도청(都請)하지만 현재는 3편을 반복하는 삼청을 하고 있다.

『지반문』·『중례문』·『결수문』은 대중소의 한국불교 수록재 의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통청으로 하느냐, 도청으로 하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청과 도청은 의례의 식의 대소를 결정하는 데 그 기준이 된다. 이는 설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기문』의 그것처럼 각단으로 설단하고 소청해서 공양을 올리기도 한다.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에서 관음청 같은 의식을 각각 청하고 있지만 각단으로 단을 차려 공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영산대회작법절차』에서 보이는 관음청은 관음전의 법당에 이르러 봉행하라고⁴⁸⁾ 지시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⁴⁹⁾

48) 『영산대회작법절차』, HR 2, 142쪽.

49) 2015년 10월 3일 부여 정림사지 야외 설단에서 행해진 부여백제수록재에서 법주 법안에 의해 그와 유사한 진행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의미의 전화(轉化)

1) 재물(齋物)의 잔영(殘影)

한국불교 수륙재에서 재자가 불전에 올리는 공양물과 스님들께 올리는 재물(齋物)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달랐었다고 보인다. 시주이운 의식에서 보았듯이 재를 올리기 위해 시주 집안에서 떡과 국수를 가지고 오면 절에서는 문밖에까지 마중을 나간다. 재를 올릴 재물은 신성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중의 생명수와 같기 때문이다. 시주이운의 시련과 대령은 재를 올리는 재자와 관련이 있다. 시주나 재자가 재물을 가지고 왔던, 재자가 위패를 가지고 왔던,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오늘날 신행으로는 대중공양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문재승불원천리(聞齋僧不遠千里)’라고⁵⁰⁾ 하여 재승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면 천 리를 멀다 않고 재장으로 모여 들었다고 한다. 대중공양은 음식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재비를 금전으로 올리게 되니, 재승을 위해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주이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주를 이운하는 것이 아니라 시주가 가지고 온 재물을 이운하는 것이다. 이때의 시물인 재물이 승소(僧笑)라는 국수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수의 대중스님들에게 재승하려면 국수를 삶아 왔을 것이다. 그 국수를 재당(식당)으로 옮기는 과정이 시주이운이라고 하였는데, 재물은 재당으로 옮기고, 시주는 불전 앞에 이르러 삼배를 올리고 불공에 들어갔다고 보인다. 그 흔적이 현재 대령 상에 놓이는 국수로 등장되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국수는 새참이었을 것이다. 이른 새벽에 조숙을 하고 의례를 참여하는 스님들에게 새참으로 국수를 돌리는 풍습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⁵¹⁾

물론 대령 상에 올려놓은 국수는, 대령한 영가의 공양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령의 문으로 볼 때 대령한 영가는 영단에 [위패를] 모셔놓고 차를 올리게 된다. 그러므로 대령 상에 놓인 국수를 대령하는 영가에게 올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변공(變供)의 변이(變異)

내가 올린 공양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일체의 삼보와 고혼들에게 공양되게 하려면

50) 경제어산 소유자 동주 원명 전언.

51) 한국전통불교의례전승원 학장 정오 혜천 전언.

공양물이 늘어나야 하고 성현과 중생이 먹을 수 있도록 변해져야(變供) 한다. 공양에는 이(理)공양과 사(事)공양이 있는데, 이공양은 이치로 공양하는 것으로 관상공양이라고 할 수 있고, 사공양은 실제로 재를 공양하는 것이다. 육신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사공양이 펼쳐져야 하지만(식당작법, 대소심경)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는 이공양이 행해진다. 상·하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수록재의(水陸齋儀)에 의하면 상단·중단·하단의 공양을 위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염송하는 진언의 차이가 있다.⁵²⁾

<표 1> 주요 전통 수록재 의문의 변공과 헌공 진언

의문	단	변공진언	헌공진언
지반문	상	변식진언, 감로수진언 21편	소향 헌등 헌화 도향 헌공 음악 헌과 헌병진언 보공양
	중	변식 14 편 감로수 수륙관 유해 각 7편	권공계송 이후 보공양진언
	하	변식 감로수 수륙관 유해 각 7편	표백 후 보공양진언
중례문	상	변식 감로수 수륙관 유해	三普沾供養 後 보공양진언
	중	"	"
	하	"	"
결수문	상	정법계 변식 출생공양 21편	현향 헌등 헌화 헌과 현수 헌병 현식 운심공양진언 각21편
	중	정법계 변식 출생공양 7편	"
	하	변식 시감로수 수륙관 유해	시귀식진언 보공양진언

<표>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현재 어떤 의문을 저본으로 삼고 있든,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공진언은 사다라니로 정착되어 있다. 논자가 『결수문』을 한국불교 수록재의의 가장 큰 전통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변공의식에 있다. 『지반문』의 남수록 계통으로 수록법회를 봉행하는 중국의 수록의문이나 시식의문에는 상단의 존재들을 위한 이공양의 진언이 변식진언과 감로수진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예는 한국불교 수록재의 상단 경전독송을 위한 법회에 활용되는 『작법절차』나 『진언권공』의 변공절차와 같다. 또 상단공양의 모범으로 보이는 요나라 도신의 『현밀성불원통십요집』 <공불이생의>의 차서⁵³⁾와도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변식 사다라니로 알려진 진언들의 고유 기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특히 유해진언은 ‘보시일체아귀인진언’이므로 상단의 불보살께 변공(變供)하는 진언으로 활용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공양의 평등과 변공의 차이는 동체대비의 사상을 드러낸다. 공양은 평등하게 나눠주지만

52)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록재에 대한 검토」, 277~278쪽.

53) <供佛利生儀>, T 46, 1004쪽.

그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용자를 위한 배려에서이다. 수록재의 곳곳에는 이와 같은 평등과 차이가 알알이 박혀 있다.⁵⁴⁾ 결국 변공의식의 변이(變異)는 상중하단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19세기 초 간행된 『작법귀감』에 이르면 완성되어 나타난다.

3) 괘불이운

괘불이운(掛佛移運)은 괘불을 재회도량으로 옮기는 의식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영산에 드신 부처님을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오시게 된다. 이를 의식으로 형태화하고 있다. 이 의식은 새로 불상을 조성해서 봉안할 곳이 떨어져 있을 때 옮기는 의식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인다.⁵⁵⁾

관음보살을 청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법당에 들어가서 해야 하고, 상위의 삼보를 청할 때는 불전에 이르러서 하라⁵⁶⁾는 협주의 지문이 보이지만 한국불교 수록재에서 상위의 소청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대개의 한국불교 수록재에서는 괘불을 사전에 이운해 설치해놓고, 실제로는 이운의식을 하지 않고, 의문만을 범패로 염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⁵⁷⁾ 수록재의문들의 협주대로라면 일체의 이운의식은 대상이 있는 곳에서 옮겨가야 할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의식을 하며 현장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의문대로 선행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괘불이운 의식은 18세기 초반의 『범음산보집』에서 등장하는 신편으로, 동시에 선행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현실적 세계관이 투영된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의 한 양태가 아닌가 한다.

V. 맺는 글

인간의 문화는 그 본질과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늘 새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적어도 12세기부터는 현재와 같은 의례의문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수록재

54)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278~279쪽.

55) 金山寺 『諸般文』, HR 2, 544쪽.

56)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HR 1, 627쪽. “次詣佛殿”

57)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2010, 『수륙재실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49쪽.

가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늘 새로운 의문을 편찬하거나 요점을 정리해 현실에 적합한 의례의문을 성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II장에서 보았듯이 한국불교 수록재에는 본질적인 설행목적은 불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인연 따라 의식이 새롭게 편성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III장에서는 의식이 상보(相補)되고 신편(新編) 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을 탐색해 보았다. 『중례문』이나 『결수문』, 『지반문』과 ‘작법절차’ ‘범음산보집’, 그리고 현재 설행되는 한국불교 수록재를 통해 운수상단의 상입(相入), 관음청의 보완(補完) 등을 상보의 미학이라고 정리해 보았다. 영산작법에 영가를 대령하는 대령과 시주를 맞이하는 시련, 신중을 청해 옹호불사를 청원하는 대소의 창불(唱佛), 오로단 의식 등에서 새로 의식을 편성하는 철학을 읽을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의례의 설행 상황을 증시하고 의미가 전화되는 것들에서 한국불교 수록재의 변용을 찾아보았다. 한국불교의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견기이작(見機而作)으로는 의례 설행 상황에 따라 자세하게 혹은 간단히 의례를 설행하거나, 소리를 쓰기도 짓기도 하고, 통청과 도청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시주가 재승을 위해 재래한 재물이 대령 상에 그 흔적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상중하단의 변공을 위한 차이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차이가 없어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 또 각 상중하단에 이르러 행해야 하는 의식을 사전에 괘불 등을 이운해 놓고 의문만을 설행하는 모습에서 현실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불교 수록재는 그 목적은 불변하나 설행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의식이 상보되거나 신편의식이 편제되는 등의 변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의례 설행 상황을 증시하여 그에 걸맞은 설행 양상이 보이고 있다. 시대를 이거(移去)해오며 재물(齋物)에 대한 이해, 변공의식에서 차이의 무화 등이 일어났고, 설행의 비 동시적으로 행해져 의문의 불일치로 인한 전화(轉化)된 모습 등 다양한 변용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한국불교의 민속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원전

T: 대정신수대장경

X: 대장신찬만속장경

HD: 한국불교전서

HR: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

『세종실록』 9권.

〈供佛利生儀〉, T 46.

『釋門正統』 第四, 宗鑑集, X 75.

『금강경언해』, 1464, 1992, 흥문각 영인본.

『金山寺 諸般文』, HR 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志磐撰, HR 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HR 1.

『靈山大會作法節次』, HR 2.

『五種梵音集』, 智禪撰, HD 12.

『諸般法要』, 법안 소장, 간기미상 필사본.

『天地冥陽水陸齋儀 梵音刪補集』, 智還集, HD 11.

구미래, 2015,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모시는사람들.

金春明, 1988, 『水陸儀文』, 全北佛教聯合會.

戴曉雲 交點, 2014, 『천지명양수륙의문교점』, 北京: 중국사회과학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부, 2010, 『수륙재실태조사보고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彌燈, 2010, 『국행수륙대제-삼화사수륙재를 중심으로』, 조계종출판사.

심상현, 2003, 『영산재』, 국립문화재연구소.

安震湖 編, 1935, 『釋門儀範』 下, 前叢商會.

月濬道安, 三和府川邊水陸疏, 1996, 『영가천혼법어집』, 토방.

임영정, 1998/2002, 『한국의 전통문화』, 아름다운세상.

고상현, 2011, 「고려시대 수륙재 연구」, 『선문화연구』 제10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延濟永, 2014, 『한국수륙재의 儀禮와 設行양상』,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민속학전공 박사학위 논문.

이성운, 2013, 「한국불교의식의 특성-상황논리의 역동과 한계」, 『대학원연구논집』 제6집,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이성운, 2014, 「삼화사 국행수륙재의 설단과 장엄」, 『삼화사 국행수륙대제의 설행양상과 발전 방향』, 삼화사.

이성운, 2015, 「수륙재의 한국화에 대한 일고찰」, 『한국선학』 제40호, 한국선학회.

이성운, 2015, 「영산재와 수륙재의 성격과 관계 탐색」, 『한국불교학』 제73호, 한국불교학회.

李誠雲, 2015, 「韓國水陸齋의 特性」, 『以法相會 - 寶寧寺·毗盧寺 明·清代水陸畫展暨學術研討會論文集』, 臺灣

財團法人佛光山文教基金會, 2015.

이성운, 2017, 「志磐文 編修와 그 特性 考察」, 『新編水陸儀文附錄』, 서울: 경제어산연구소.

이성운, 2013, 「현행 한국수륙재에 대한 검토」, 『한국선학』 제36호, 한국선학회.

국문초록

12세기부터는 현재와 같은 수록재 의문(儀文)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수록재가 설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불교 수록재에는 적지 않은 변용이 발견된다. 의문을 훑어보면, 새롭게 편찬되거나 요점이 정리되는 등 현실에 적합한 의문으로 변용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수록재의 설행 양태는 상황이라는 인연을 따라 변용되었지만 그 목적은 불변하고 있음을 II장에서 알 수 있었다.

또, 현재 한국불교 수록재에서 설행되는 운수상단(雲水上壇)의 보입(補入)과 관음청의 보완 등 상보(相補)되거나, <영산작법>의 대령(對靈)과 시련(侍輦), 신중작법(神衆作法)의 대소창불(大小唱佛) 등의 의식이 새로 편성되었음을 III장에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례설행 상황의 증시, 의미의 전화(轉化)를 알 수 있었는데, 한국불교의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견기이작(見機而作)으로 말미암아 변용이 적지 않음을 IV장에서 알 수 있었다. 의식의 광략(廣略), 변공의식(變供儀式) 차이의 무화(無化), 실제 의식을 사전에 설치하고 의문만을 염송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결국 한국불교 수록재는 목적은 불변하나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인연 따라 의례의식이 보완되거나 새롭게 편제되면서 변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신중작법(神衆作法), 시련(侍輦), 대령(對靈), 운수상단(雲水上壇), 영산작법(靈山作法), 관음청(觀音請)

Abstract

Consideration of the variation of *Suryukjae* in Korean Buddhism

-Focusing on the detailed rituals-

Lee Sungwoon

Research Professor at Dongbang Culture University

Suryukjae (水陸齋, the offering ritual for land and water) has been performed in Korean Buddhism since the 12 th century based upon the same ritual oration (儀文) which changed over time. Examining the ritual orations reveals they newly compiled and summed up slowly changing into realistic ones for today.

However, from the study of chapter II, we can see that its purpose remains unchanged even though the style of practice has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t situations. From Chapter III, we determined that *Suryukjae* in Korean Buddhism as currently practiced, always includes *Woonsoosangdan* (雲水上壇, the upper altar for the cloud and water) and praying to Avalokiteśvara (*Gwaneumcheong*, 觀音請). The new rituals are organized to include *Daeryeong* (對靈, the rite of calling the soul in), *Siryeon* (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in *Yeongsanjakbeop* (靈山作法, the rule of conduct for Vulture Peak ritual) and *Daesochangbul* (大小唱佛, hailing Buddhas in large or small group) in *Sinjungjakbeop* (神衆作法, the rule of conduct for the ritual for pantheon).

It was also observed that the situation in which the rituals are held is looked upon as important while the meaning has changed, particularly due to the 'getting wind of something and taking action in advance (見機而作)' which is extensively used in Korean Buddhist rituals. This variation is typified in both complete or partial rituals, the indistinction of the rites for *byeongong* (變供, changing the offerings), chanting only the ritual oration(儀文).

In the end, it is clear that the purpose of *Suryukjae* has not been changed in Korean Buddhism but that the ritual ceremony was modified through time to reflect the circumstances. The ritual ceremony was either replaced or was reorganized.

Keywords

Sinjungjakbeop (神衆作法, the rule of conduct for the ritual for pantheon), *Siryeon* (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Daeryeong* (對靈, the rite of calling the soul in), *Woonsoosangdan* (雲水上壇, the upper altar for the cloud and water), *Yeongsanjakbeop*

(靈山作法, the rule of conduct for Vulture Peak ritual), *Gwaneumcheong* (觀音請, praying to Avalokiteśvara)